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년생의 흡연 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상 영 · 정 문 숙

Smoking Investigation of the Sixth Year Grade-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the Rural and Small Sized Urban Area

Sang Young Kim, Moon Sook J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To investigate the rate of smoking of 6th year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by general characteristics in rural and small sized urb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Feb. 1, 1994 to Feb. 28, 1994 to 778 respondents of sixth year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rural area and 649 students in the small sized urban area, and also it was based on the questionnaire method.

The sample consisted of 22 questions for general features of the respondents and 19 questions of smoking-ideas, totally 41 quest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the general features and the smoking oriented-factors, the real smoking fact of students, their ideas on smoking influences, and these questionnaires were statistically analysed by percentage and χ^2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total respondents were 1427 students. 54.5% of respondents was of the farming, fishing area-students and 45.5% was of small, medium-sized city.

Talking about the statistics of smoking, the present smoking boy-students in the farming, fishing area was marked to 14.6% ; the present smoking-boy students was marked 5.7% in the small, medium sized-city.

From the viewpoint of smoking experience, 13.8% of students in farming, fishing area was shown to be experienced ; 9.7% of students in the small, medium sized-city was shown to be experienced. Thi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of $p < 0.01$ between two compared areas.

From the viewpoint of family scale, in the family with many brothers, the younger brothers have a higher rate of $p < 0.001$ of smoking-oriented than elder brother, and the students with a single parent or without parents have a higher rate of smoking on. In addition, the motivation of their smoking indicated that they had the most curiosity in smoking.

From the viewpoint of academic grade, the low-level group has a higher smoking rate.

Talking about the smoking knowledge of students, the present smoking students has less ideas about the smoking influences than non-smoking students.

More than 70% of the smoking-student group agreed that the education on the smoking influences was required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서 론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소개되기는 1590년대의 임진왜란 때 일본인에 의해서 였다고 하며, 담배의 모종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는 광해군 초부터라고 한다(김두중, 1966).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배를 어느 정도 피웠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에 관하여는 1951년 이후 특히 미국 농지에서 동물실험, 임상 및 부검실험, 역학적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유해성이 입증된 바 있고 WHO, 미국암협회, 미국보건교육위생성 등이 앞장서서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 널리 대중에게 계몽하고 있으며, 1967년 미국의 과학회는 흡연이 폐암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조상문, 1973; 김명호, 1980).

담배 중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종류만도 1150가지 이상이 되고 그 중 300가지는 검출 방법 개선에 따라 최근 수년간에 알려진 화학물질이다. 흡연은 호흡기의 암성 질환뿐만 아니라 상부위장관암, 요로계암, 폐장암 등 여러 가지 암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흡연에 의한 건강 위해 종류를 살펴보면 심상질환, 암성질환, 폐질환, 임신부 흡연의 합병증, 위장장애, 간접흡연, 실내공기오염, 흡연행위의 정신의학적 고찰 등이다(WHO, 1975; Malotte 등, 1981; Mennis, 1983; Fielding, 1986; 대한보건협회, 1989).

1985년 대한결핵협회가 조사한 전국 30세 이상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71.1%와 10.7%로 질병별 흡연 관련 사망 추성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녀 30세 이상의 연간 사망 가운데 남자 사망의 16.6%와 여자 사망의 3.5%는 그 원인이 과도 흡연에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성인 남녀 전체 암사망 가운데 남자 암 사망 31.6%와 여자 암의 3.7%는 그 원인이 흡연에 있었다(맹광호, 1988).

암으로 인한 사망중 흡연의 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후두암(93.2%)이었고, 구강 및 인후암(71.7%), 폐 및 기관지암(69.0%) 순이었으며, 여자 암 사망중에서는 후두암(20.6%)이 가장 큰 위험도를 보였고, 다음이 폐 및 기관지암(10.5%)이었다.

암 이외 우리나라 성인 남자 사망 가운데 빈도가 많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흡연 기여위험도는 15.6% 였으며,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은 17.1%가 흡연 때문이었으며, 진폐증 및 기관지 확장증 46.4%, 위 및 십이지장궤양 43.2%, 허혈성 심장질환 33.5%, 고혈압성 심장질환 32.9%였다.

여자는 뇌혈관질환이 2.3%였고, 흡연의 기여위험도가 높은 것은 기관지확장증 및 기타 폐질환 15.5%, 위 및 십이지장궤양 12.4%, 허혈성 심장질환 7.7%였다.

연령별 흡연율은 남자는 20세에서 39세 사이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상 연령층은 감소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흡연율이 증가하여 50세 이상이 흡연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 흡연율은 도시에 비해 농촌이 흡연율이 더 높았다(강복수와 이성관, 1980).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렇게 위해한 흡연이 남성에게서는 변화가 없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하여, 여성흡연과 청소년 흡연은 1980년대 소위 두발과 교복 자율화가 상징하는 학원의 자율화 물결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지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온 많은 사회적인 구속에서 해방되는 과정으로 젊은 여성흡연과 청소년 흡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일순, 1992).

국내 연구팀이 1989년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실태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흡연율은 2%미반이지만 고등학교로 가면서 현재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7.3%, 2학년에서는 26.8% 그리고 3학년에서는 50.0%의 학생이 현재 흡연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1차 조사(1988)의 흡연율에 비해 각 학년 약 10%이상씩 증가하고 있었다. 흡연경험은 중학생은 평균 23.0%, 고등학생은 26.0%이었으며,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경험율은 72.4%(과거흡연 22.4%포함)에 이르고 있다(대한보건협회, 1992). 이와 같이 청소년 흡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무리 적은 양일지라도 성장해가는 단계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며, 흡연 기간의 증가로 인하여 이 세대들이 50대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규모의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률과 사망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강복수 등, 1980; 김돈균, 1980)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는 흡연연령이 더욱 낮아져(김일순, 1992) 국민학생들에게까지 흡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까지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거의 없어 본 연구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학년생의 흡연 실태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이 조기흡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상북도내 농어촌 6개교 국민학교 6학년 남녀 800명과 중소도시 2개교 국민학교 6학년 남녀 670명, 총 1,47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흡연실태와 의견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연구자가 해당학교 양호교사에게 설명하였으며 답인교사가 대상학생에게 직접 배부하여 무기명으로 기록케 하고, 봉투에 넣게 하여 양호교사가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1,470부 가운데 기재가 불완전한 농어촌 22부, 중소도시 21부를 제외한 농어촌 778부, 중소도시 649부, 총 1,427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임태빈, 1976; 정경입, 1981; 백남염, 1986; 서일등, 1988)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반적 특성 22문항, 흡연에 관한 의견을 묻는 19문항,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농어촌, 중소도시로 구분하였고, "현재 한달에 1-2회 이상 흡연한다"에 응답한 학생을 흡연군으로 하고, "과거 흡연을 해본 흡연 경험" 학생과 "전혀 피우지 않았다"에 응답한 학생을 비흡연군으로 나누어 흡연, 비흡연군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농어촌,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유무를 비교 분석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백분율을 구하고 χ^2 -test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1,427명 중 농어촌 학생이 778명(54.5%), 중소도시 학생이 649명(45.5%)이었으며 남녀 별로는 남학생이 694명(48.6%)이고, 여학생이 733명(51.4%)였다.

가족형태는 대가족이 농어촌은 22.8%였고, 중소도시는 10.8%였다. 부(父)의 직업을 보면 농어촌은 어업이 38.8%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는 회사원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모(母)의 직업은 주부가 농어촌은 55.7%, 중소도시는 65.4%로 농어촌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모두 불교가 가장 많았고, 부의 교육 정도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으나 농어촌의 경우 고졸이 20.8%인 반면 중소도시는 7.6%로 나타났다. 모의 교육정도는 농어촌은 중졸이 33.5%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고졸이 48.7%로 가장 많았다(표 1-1).

종교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모두 불교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 수는 농어촌은 1남 1녀가 28.9%, 중소도시는 1남 1녀가 40.4%로 가장 많았다. 가족 상황에서는 부모가 있는 학생이 농어촌이 86.9%이고, 중소도시는 94.3%로 농어촌 가정에서 결손 아동이 많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농어촌에서 "모름이다"가 63.5%이고, 중소도시에는 64.3%였다. 용돈 지출에서는 농어촌은 군것질이 35.6%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학용품 구입이 39.1%로 가장 많았다.

한달 용돈은 전체 대상자의 59.4%가 일정한 액 없이 "수시로 타 쓴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학교수업이외 시간 활용에서는 농어촌은 운동과 놀이가 41.9%인 반면 중소도시는 학원에 간다"가 5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대상학생의 흡연율을 보면 현재 흡연율은 5.5%(79명)이었고 흡연경험 학생은 6.9%(98명)이었으며, 비흡연은 87.6%(1250명)이었다. 농어촌 남학생의 흡연율은 14.6%, 흡연경험은 13.8%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남학생의 흡연율은 5.7%, 흡연경험율은 9.7%로 흡연율이 농어촌 남학생은 중소도시 남학생의 3배 가까이 되어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인수(%)		
		농어촌	중소도시	계
성별	남	376 (48.3)	318 (49.0)	694 (48.6)
	여	402 (51.7)	331 (51.0)	733 (51.4)
가족형태	핵가족	601 (77.2)	579 (89.2)	430 (82.7)
	대가족	177 (22.8)	70 (10.8)	247 (17.3)
부 직업	회사원	87 (11.2)	295 (45.4)	382 (26.8)
	공무원	34 (4.4)	39 (6.0)	73 (5.1)
	농업	23 (3.0)	3 (0.5)	26 (1.8)
	어업	302 (38.8)	11 (1.7)	313 (21.9)
	상업	101 (13.0)	128 (19.7)	229 (16.0)
	무직	42 (5.4)	13 (2.0)	55 (3.9)
	기타	141 (18.1)	138 (21.3)	279 (19.6)
	무응답	48 (6.1)	22 (3.4)	70 (4.9)
	모 직업	주부	433 (55.7)	425 (65.4)
	회사원	108 (13.9)	53 (8.2)	161 (11.3)
	공무원	3 (0.4)	4 (0.6)	7 (0.5)
	농업	10 (1.3)	1 (0.2)	11 (0.8)
	어업	61 (7.8)	1 (0.2)	62 (4.3)
	상업	124 (15.9)	156 (24.0)	280 (19.6)
	기타	12 (1.5)	7 (1.1)	19 (1.3)
	무응답	27 (3.5)	2 (0.3)	29 (2.1)
가족종교	기독교	116 (14.9)	112 (17.3)	228 (16.0)
	불교	457 (58.7)	359 (55.3)	816 (57.2)
	천주교	33 (4.2)	51 (7.9)	84 (5.9)
	기타	172 (22.2)	127 (19.5)	299 (20.9)
부 교육 정도	국졸	162 (20.8)	49 (7.6)	211 (14.8)
	중졸	209 (26.9)	118 (18.2)	327 (22.9)
	고졸	328 (42.2)	345 (53.2)	673 (47.2)
	대졸이상	55 (7.1)	120 (18.5)	175 (12.3)
	무응답	24 (3.0)	17 (2.5)	41 (2.8)
	모 교육 정도	국졸	196 (25.2)	66 (10.2)
	중졸	261 (33.5)	190 (29.3)	451 (31.6)
	고졸	244 (31.4)	316 (48.7)	560 (39.2)
	대졸이상	40 (5.1)	55 (8.5)	95 (6.7)
	무응답	37 (4.8)	22 (3.3)	59 (4.1)
	계	778 (100.0)	649 (100.0)	1427 (100.0)

표 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인수(%)		
		농어촌	중소도시	계
학생종교	기독교	222 (28.5)	174 (26.8)	396 (27.8)
	불교	339 (43.6)	244 (37.6)	583 (40.9)
	천주교	55 (7.1)	55 (8.5)	110 (7.7)
	기타	162 (20.8)	176 (27.1)	338 (23.6)
형제 지매 수	1남1녀	225 (28.9)	262 (40.4)	487 (34.1)
	2남	107 (13.8)	85 (13.1)	192 (13.5)
	2녀	39 (5.0)	53 (8.2)	92 (6.4)
	2남1녀	67 (8.6)	48 (7.4)	115 (8.1)
	1남2녀	129 (16.6)	97 (15.0)	226 (15.8)
	기타	211 (27.1)	104 (15.9)	315 (22.1)
형제 자매 순위	장남	229 (29.4)	230 (35.4)	459 (32.2)
	차남	127 (16.3)	86 (13.3)	213 (14.9)
	장녀	197 (25.3)	191 (29.4)	388 (27.2)
	차녀	161 (20.7)	107 (16.5)	268 (18.8)
	기타	64 (8.3)	35 (5.4)	99 (6.9)
가족상황	부모계심	676 (86.9)	612 (94.3)	1288 (90.3)
	편부	33 (4.2)	6 (0.9)	39 (2.7)
	편모	58 (7.5)	29 (4.5)	87 (6.1)
	부모양계심	11 (1.4)	2 (0.3)	13 (0.9)
부모 관심노	관심많음	262 (33.7)	219 (33.7)	481 (33.7)
	무관심	22 (2.8)	13 (2.0)	35 (2.5)
	보통	494 (63.5)	417 (64.3)	911 (63.8)
한달용돈	오전원	90 (11.6)	92 (14.2)	182 (12.8)
	만원	132 (17.0)	168 (25.9)	300 (21.0)
	이만원	36 (4.6)	27 (4.2)	63 (4.4)
	이만원이상	25 (3.2)	9 (1.4)	34 (2.4)
	일정액없음	495 (63.6)	353 (54.3)	848 (59.4)
	용돈 지출처	학용품구입	253 (32.5)	254 (39.1)
	군것질	277 (35.6)	227 (35.0)	504 (35.3)
	오락실,만화책	87 (11.2)	44 (6.8)	131 (9.2)
	기타	161 (20.7)	124 (19.1)	285 (20.0)
학교수업 활용	학원	250 (32.1)	341 (52.5)	591 (41.4)
	이외시간 운동, 놀이	326 (41.9)	156 (24.0)	482 (33.8)
	T.V., 라디오	159 (20.4)	134 (20.6)	293 (20.5)
	오락	43 (5.6)	18 (2.9)	61 (4.3)
	계	778(100.0)	649(100.0)	1427(100.0)

여학생은 흡연이 많지 않았으며, 농어촌과 중소도시 남학생의 흡연율은 10.5%이며 여학생은 0.8%이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 남학생 흡연경험율은 12.0%이었으며, 여학생의 경험율은 2.0%였다(표 2).

표 2. 대상학생의 지역별, 남여별 흡연실태 및 흡연 경험율

		단위 : 인수(%)				
		흡연	흡연경험	비흡연	계	χ^2
농어촌	남	55(14.6)	52(13.8)	269(71.6)	376	9.26**
	여	4(1.0)	5(1.2)	393(97.8)	402	
중소도시	남	18(5.7)	31(9.7)	269(84.6)	318	
	여	2(0.6)	10(3.0)	319(96.4)	331	
계	남	73(10.5)	83(12.0)	538(77.5)	694	
	여	6(0.8)	15(2.0)	712(97.2)	733	
총	계	79(5.5)	98(6.9)	1250(87.6)	1427	

**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 학생의 흡연율을 보면 대가족에서 흡연학생이 22.8%로 비흡연학생 16.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흡연학생의 부의 직업은 회사원이 20.2%로 나타났고 농어업에서 34.2%로 나타나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모의 직업과 가족 종교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부의 교육 정도가 흡연 학생의 22.8%가 국졸인 반면 비흡연학생은 14.3%로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흡연학생의 5.1%가 아버지의 교육 정도가 대졸이었으며 비흡연학생은 12.7%가 대졸자이었다(p<0.001)(표 3-1).

흡연학생의 형제자매수가 남자 형제만 있을 때 25.3%가 흡연하여 비흡연학생의 12.8% 보다 2배 높게 나타나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형제 순위가 차남인 경우 흡연학생은 36.7%로 비흡연학생의 13.6%보다 높아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 성적을 보면 성적이 하위인 학생은 흡연

이 27.9%였고, 비흡연이 15.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학생의 집은 흡연학생의 6.4%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반해 비흡연학생은 2.1%에 불과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3-2).

표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 학생의 흡연율
단위 : 인수(%)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계	χ^2
가족형태	핵가족	61(77.2)	1120(83.1)	1181(82.8)	0.35
	대가족	18(22.8)	228(16.9)	246(17.2)	
부 직업	회사원	16(20.2)	438(32.5)	454(31.8)	19.47***
	농어업	27(34.2)	312(23.1)	339(23.8)	
	상업	7(8.9)	222(16.5)	229(16.0)	
	기타	29(36.7)	376(27.9)	405(28.4)	
모 직업	주부	50(63.3)	807(59.9)	857(60.0)	4.28
	회사원	8(10.1)	160(11.9)	168(11.8)	
	농어업	2(2.5)	71(5.3)	73(5.1)	
	상업	10(12.7)	270(20.2)	280(19.6)	
가족종교	가독교	12(15.2)	215(15.9)	227(15.9)	0.74
	불교	46(58.2)	770(57.1)	816(57.2)	
	천주교	3(3.8)	81(6.0)	84(5.9)	
	기타	18(22.8)	282(21.0)	300(21.0)	
부 교육 정도	국졸	18(22.8)	193(14.3)	211(14.8)	7.22***
	중졸	18(22.8)	309(22.9)	327(22.9)	
	고졸	36(45.6)	636(47.2)	672(47.1)	
	대졸이상	4(5.1)	171(12.7)	175(12.3)	
모 교육 정도	국졸	3(3.7)	39(2.9)	42(2.9)	4.86
	중졸	17(21.5)	245(18.2)	262(18.4)	
	고졸	27(34.2)	423(31.4)	450(31.5)	
	대졸이상	28(35.4)	532(39.5)	560(39.2)	
무응답	대졸이상	1(1.3)	94(7.0)	95(6.7)	
	무응답	6(7.6)	54(3.9)	60(4.2)	
	계	79(100.0)	1348(100.0)	1427(100.0)	

*** p<0.001

표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 학생의 흡연을

		단위 : 인수(%)			χ^2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계		
학생종교	기독교	15 (19.0)	380 (28.2)	395 (27.7)	5.84
	불교	36 (45.6)	549 (40.7)	585 (41.0)	
	천주교	10 (12.7)	100 (7.4)	110 (7.7)	
	기타	18 (22.7)	319 (23.7)	337 (23.6)	
형제, 자매수	1남1녀	23 (29.1)	464 (34.4)	487 (34.1)	14.25
	2남	20 (25.3)	172 (12.8)	192 (13.5)	
	2녀	2 (2.5)	90 (6.7)	92 (6.4)	
	2남1녀	4 (5.1)	111 (8.2)	115 (8.1)	
	1남2녀	12 (15.2)	213 (15.8)	225 (15.8)	
	기타	18 (22.8)	293 (22.1)	316 (22.1)	
형제, 자매 순위	장남	38 (48.1)	420 (31.2)	458 (32.1)	63.12***
	차남	29 (36.7)	184 (13.6)	213 (14.9)	
	장녀	4 (5.1)	384 (28.5)	388 (27.2)	
	차녀	2 (2.5)	266 (19.7)	268 (18.8)	
	기타	6 (7.6)	94 (7.0)	100 (7.0)	
학교성적	상	5 (6.3)	251 (18.6)	256 (17.9)	13.98***
	중	52 (65.8)	895 (66.4)	947 (66.4)	
	하	22 (27.9)	202 (15.0)	224 (15.7)	
학생의집	자기집	63 (79.7)	1000 (74.2)	1063 (74.5)	8.84*
	전세	11 (13.9)	319 (23.7)	330 (23.1)	
	월세	5 (6.4)	29 (2.1)	34 (2.4)	
	계	79(100.0)	1348(100.0)	1427(100.0)	

* p<0.05 *** p<0.001

결혼 가정중에서 흡연학생이 20.3%로 현저히 높았고, 부모가 없는 경우 비흡연학생이 0.7%인 반면, 흡연학생은 5.1%로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대답한 학생중 흡연학생은 7.6%이었으나 비흡연학생은 2.2%에 불과해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한달 용돈이 이만원 이상이거나 일정치 않은 경우 흡연학생의 5.1% 및 75.9%도 비흡연학생의 2.2% 및 58.5% 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었고(p<0.01), 용돈 지출은 흡연학생중에서 군것질을 하는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으나, 비흡연학생은 학용품 구입이 37.3%로 가장 많아 양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수업 이외의 시간 활용을 보면 흡연학생들은 운동이나 놀이가 가장 많아 49.4%였고, 그 다음이 T.V, 라디오 시청이 20.3%로 나타났으며, 비흡연학생은 “학원에 간다”가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운동이나 놀이가 32.4%로 나타나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오락물 즐긴다”도 흡연학생에서는 13.8%였으나 비흡연학생은 4.1%로 나타나 흡연 유무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표 3-3).

표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 학생의 흡연을
단위 : 인수(%)

		단위 : 인수(%)			χ^2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계		
가족상황	부모계심	63(79.7)	1225(90.9)	1288(90.3)	24.71***
	편부	6(7.6)	33(2.4)	39(2.7)	
	편모	6(7.6)	81(6.0)	87(6.1)	
	부모안계심	4(5.1)	9(0.7)	13(0.9)	
부모 관심도	관심없음	30(38.0)	451(33.5)	481(33.7)	11.24**
	무관심	6(7.6)	29(2.2)	35(2.5)	
	보통	43(54.4)	868(64.3)	911(63.8)	
한달용돈	오천원	47(8.9)	174(12.9)	182(12.7)	16.04**
	만원	5(6.3)	235(21.9)	300(21.0)	
	이만원	3(3.8)	60(4.5)	63(4.4)	
	이만원이상	4(5.1)	30(2.2)	34(2.4)	
	일정액없음	60(75.9)	789(58.5)	849(59.5)	
용돈 지출처	학용품구입	4(5.1)	503(37.3)	507(35.5)	60.56***
	군것질	39(49.4)	464(34.4)	503(35.3)	
	오락실·반화객	12(15.2)	109(8.1)	121(8.5)	
	기타	24(30.3)	272(20.2)	296(20.7)	
학교수업 이외 시간 활용	학원	13(16.5)	580(43.0)	593(41.6)	24.81***
	운동·놀이	39(49.4)	437(32.4)	476(33.4)	
	T.V·라디오	16(20.3)	277(20.5)	293(20.5)	
	오락	11(13.8)	54(4.1)	65(4.5)	
계	79(100.0)	1348(100.0)	1427(100.0)		

** p<0.01 *** p<0.001

흡연학생의 최초 흡연 연령을 보면 농어촌은 6학년 때가 40.7%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6

학년(20.0%), 5학년(25.0%), 4학년(30.0%) 및 3학년이하(25.0%) 순으로 골고루 분포를 보였다. 흡연동기를 보면 농어촌은 호기심 42.4%, 친구의 권유 28.8%, 선배, 형의 권유가 18.6%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대부분이 호기심 75.0%이었으며, 어른 흉내 10.0%, 선배, 형의 권유 10.0% 순으로 나타나 양군의 흡연 동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흡연량은 한달 1-2회가 대부분(82.3%)이었으며, 부모가 학생의 흡연을 "모르고 있다"가 73.4%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 부모는 "알고 있다"가 30.0%로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흡연장소로 농어촌학생은 "야외에서"가 6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화장실 16.9%, 친구집 15.3% 순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자기집이 45.0%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 35.5%로 나타나 양군의 흡연장소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흡연시 증상은 "기침이 난다"가 49.4%, "별변화가 없다"가 41.7%이었으며, 담배구입은 농어촌의 경우 친구나, 선배로부터 얻는다가 44.1%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어른의 담배를 꺼낸다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용돈으로 산다"가 25%의 순으로 농어촌 및 중소도시간 담배구입 경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표 4).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흡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흡연학생의 가족중 흡연자가 있는 학생이 60%로, 없는 학생의 40% 보다 약간 높았으며, 흡연학생중 담배 심부름을 "자주 한다"가 9.2%였고, "하지 않는다"가 4.0%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나($p < 0.05$).

흡연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준다"에 흡연학생의 3.8%만이 응답하였고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0.8%로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의 신체적 피해는 흡연학생의 12.5%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양군간 유의한 차($p < 0.001$)를 나타냈다.

담배 해독에 관한 정보를 얻은 곳으로는 비흡연학생은 96.7%가 부모에게 서로 가장 많았고 T.V나 라디오에서 들었다가 95.2%로 그 다음이었으며, 흡연학생은 친구나 선배에게 들었다가 22.6%로 가장 높아 양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표 5).

표 4. 흡연학생의 흡연 실태

		단위 : 인수(%)			χ^2
		농어촌	중소도시	계	
최초흡연연령	6학년	24(40.7)	4(20.0)	28(35.4)	
	5학년	14(23.7)	5(25.0)	19(24.1)	
	4학년	7(11.9)	6(30.0)	13(16.5)	6.01
	3학년이하	14(23.7)	5(25.0)	19(24.0)	
흡연동기	호기심	25(42.4)	15(75.0)	40(50.6)	
	친구의권유	17(28.8)	1(5.0)	18(22.8)	
	선배, 형의권유	11(18.6)	2(10.0)	13(16.5)	9.63*
	멋으로	3(5.1)	-	3(3.8)	
	어른흉내	3(5.1)	2(10.0)	5(6.3)	
	반항심으로	-	-	-	
흡연량	한달1-2회	48(81.4)	17(85.0)	65(82.3)	
	일주1-2회	6(10.2)	2(10.0)	8(10.1)	
	일주3-4회	2(3.4)	1(5.0)	3(3.8)	7.71
	하루1-2회	1(1.6)	-	1(1.3)	
	하루3회이상	2(3.4)	-	2(2.5)	
부모의학생 흡연 인지	알고계심	4(6.8)	6(30.0)	10(12.7)	
	모르고계심	47(79.7)	11(55.0)	58(73.4)	7.91*
	잘모르겠다	8(13.5)	3(15.0)	11(13.9)	
흡연장소	자기집	2(3.4)	9(45.0)	11(13.9)	
	친구집	9(15.3)	1(5.0)	10(12.7)	24.49***
	야외	36(61.0)	3(15.0)	39(49.4)	
	화장실	10(16.9)	7(35.0)	17(21.5)	
	오락실,민화가게	2(3.4)	-	2(2.5)	
흡연시증상	기분이좋다	7(11.9)	-	7(8.9)	
	기침이난다	30(50.3)	9(45.0)	39(49.4)	4.18
	별변화없음	22(37.3)	11(55.0)	33(41.7)	
담배구입	용돈으로	19(32.2)	5(25.0)	24(30.4)	
	친구,선배부터	26(44.1)	4(20.0)	30(38.0)	8.86*
	어른들의담배꺼냄	11(18.6)	10(50.0)	21(26.6)	
	거것으로돈을타서	3(5.1)	1(5.0)	4(5.0)	
계		59(100.0)	20(100.0)	79(100.0)	

* $p < 0.05$ *** $p < 0.001$

표 5.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흡연에 관한 의견
단위: 인수(%)

	흡연학생	비흡연학생	계	χ^2	
가족중흡연자 있다	68(6.0)	1074(94.0)	1142(100.0)	1.25	
	없다	11(4.0)	274(96.0)		285(100.0)
담배심부름	자주한다	25(9.2)	248(90.8)	273(100.0)	6.83*
	가끔한다	36(5.1)	664(94.9)	700(100.0)	
	하지않는다	18(4.0)	436(96.0)	454(100.0)	
흡연의 신체적 피해	나쁜영향을줌	47(3.8)	1183(96.2)	1230(100.0)	54.95***
	나쁜영향을주지않음	10(20.8)	38(79.2)	48(100.0)	
	잘모른다	22(14.8)	127(85.2)	149(100.0)	
흡연이가장 피해를주는 기관	호흡기	29(4.5)	616(95.5)	645(100.0)	31.05***
	소화기	3(23.1)	10(76.9)	13(100.0)	
	심장, 혈관	2(8.0)	23(92.0)	25(100.0)	
	몸진체	15(3.0)	489(97.0)	504(100.0)	
	잘모르겠다	30(12.5)	210(87.5)	240(100.0)	
흡연이학업에 미치는영향	머리틀나쁘게함	41(4.5)	880(95.5)	921(100.0)	6.45
	머리틀좋게함	2(14.3)	12(85.7)	14(100.0)	
	공부위성관없음	6(6.8)	82(93.2)	88(100.0)	
	잘모르겠다	30(7.4)	374(92.6)	404(100.0)	
담배의유독 성분에대해	알고있다	32(5.3)	572(94.7)	604(100.0)	2.65
	모르고있다	47(5.7)	736(94.3)	823(100.0)	
담배의해독에 관한 정보	T.V, 라디오	51(4.8)	1004(95.2)	1055(100.0)	18.61***
	친구, 선배	7(22.6)	24(77.4)	31(100.0)	
	학교선생님	5(6.6)	71(93.4)	76(100.0)	
	부모님	6(4.3)	133(95.7)	139(100.0)	
	들은적없다	10(7.9)	116(92.1)	126(100.0)	
계	79(5.6)	1348(94.4)	1427(100.0)		

* p<0.05 *** p<0.001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에 대한 의견을 보면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해 남학생은 81.1%가, 여학생은 93.6%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흡연군에서 26.1%의 남학생이 그리고 16.7%의 여학생이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장래 흡연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50.9%가 “피우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88.7%보다 낮았고 “성인이 되어야 한다”에 남학생 44.1%가

여학생의 9.8%가 응답하였다.

성인 흡연에 대해 남학생의 70.2%가 여학생의 82.8%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생각해본일이 없다”에 남학생의 27.2%가 여학생의 16.2%보다 더 높았으며,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남학생 70.6%와 여학생의 75.2%가 응답해서 높은 비율이었지만 흡연여학생은 모두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흡연남학생의 24.7%가 잘 모르겠다, 13.7%가 필요치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6).

표 6. 성별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단위: 인수(%)

	남학생		여학생				
	흡연	비흡연	흡연	비흡연			
미성년자의 흡연에대해	좋지않다	49(67.1)	514(82.8)	563(81.1)	5(83.3)	681(93.7)	686(93.6)
	좋다	5(8.8)	6(1.0)	11(1.6)	-	4(0.6)	4(0.5)
	관심없다	19(26.1)	101(16.2)	120(17.3)	10(16.7)	42(5.7)	45(5.9)
상대흡연에 대해	피우지않겠다	33(47.9)	318(51.2)	333(50.9)	30(50.0)	647(89.0)	677(88.7)
	피우겠다	9(12.3)	28(4.2)	33(5.0)	10(16.7)	10(1.4)	11(1.5)
	상인이되어야한다	29(39.8)	277(46.6)	306(44.1)	23(33.3)	70(9.6)	72(9.8)
성인의흡연에 대해	찬성이다	2(2.7)	16(2.6)	18(2.6)	-	7(1.0)	7(1.0)
	반대이다	50(68.5)	437(70.4)	487(70.2)	4(66.7)	633(82.9)	637(82.8)
	생각해본적없다	21(28.8)	188(27.0)	189(27.2)	2(33.3)	117(16.1)	119(16.2)
금연교육에 대해	필요하다	45(61.6)	445(71.7)	400(70.6)	6(100.0)	655(75.5)	661(75.2)
	필요하지않다	10(13.7)	82(13.2)	92(13.3)	-	89(12.2)	89(12.1)
	잘모르겠다	18(24.7)	94(15.1)	112(16.1)	-	93(12.8)	93(12.7)
계	73(10.5)	621(89.5)	694(100.0)	6(0.8)	727(99.2)	733(100.0)	

고 찰

흡연이 건강에 위해하며 질병의 이환율이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우리나라의 최근 보고(김일순, 1992)에서 보면 전체 흡연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인데 반하여 여성 및 청소년흡연은 증가(이길홍, 1988)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 흡연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그리고 금연운동의 증가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흡연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학년의 흡연실태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지식 및 의견 등을 조사해 봄으로써 조기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 1,427명중 농어촌 학생이 778명(54.5%), 중소도시 학생이 649명(45.5%)였으며 남녀 별리는 남학생이 694명(48.6%), 여학생이 733명(51.4%)였다. 농어촌에는 대가족이 22.8%였고, 중소도시는 10.8%로 농어촌에서 대가족이 많은 것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부의 직업이 농어촌은 어업이 38.8%로 가장 많았으나 중소도시는 회사원이 45.4%로 많았으며, 모의 직업은 농어촌에는 44.3%, 중소도시는 34.6%가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에서 모의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교육 정도는 농어촌은 고졸, 중졸, 국졸의 순이었고, 중소도시에서는 고졸, 대졸이상, 중졸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가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교육 정도도 농어촌은 중졸이 제일 많았고, 중소도시는 고졸이 제일 많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종교는 농어촌, 중소도시 모두 불교가 가장 많았으며 형제 자매 수는 1남 1녀가 가장 많아 농어촌, 중소도시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들의 가족 상황에서는 결손 가정이 농어촌은 13.1%였으며 중소도시는 5.7%로 나타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흡연율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농어촌, 중소도시 모두 보통이 가장 많아서 큰 차이는 없었고 용돈은 일정액이 없이 “수시로 타 쓴다”는 경우가 많았다.

용돈 지출은 농어촌의 경우 군것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용품구입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반대로 학용품구입, 군것질 순으로 나타나 문화적인 혜택의 차이로 학구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학교수업 이외 시간 활용에서는 농어촌은 운동이나 놀이가 가장 많았으나 중소도시 아동들은 학원에 가는 것이 가장 많아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결손 가정이 많고 모의

취업율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으나 적당한 시설이 없어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을 주로 놀이나 운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동년배 친구보다 선배나 형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 자연 흡연 기회가 많아지므로 방과후 적절한 시간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실태 조사 대상이 된 국민학생들은 현재 한달 1-2회 이상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농어촌 남학생의 경우 14.6%, 흡연경험이 13.8%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흡연이 5.7%, 흡연경험이 9.7%로 놀라게 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흡연율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신옥(1985)과는 일치하나 김일순(1992)의 결과와는 상반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민학생의 흡연율이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의 흡연에 비해 양적으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심리적으로는 호기심에 가득찬 국민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조기 흡연은 매우 위험하며 성인기에 악성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흡연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죽 전매청(1990)의 담배와 건강에서 보면, 15세에서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수명에서 8년, 25세 이후에 시작한 사람은 평균 4년의 수명이 단축되며, 암 발생률에서 보면 19세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5.7배, 20-24세는 4.7배, 30세 이상은 1.7배로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 수록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가족의 경우와 농어업에서 흡연율이 높은 것은 흡연 동기 유발과 가정 환경이 흡연율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학생의 부의 교육 정도가 국졸이나, 중졸이 많은 것도 생업에 바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흡연과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남자고등 학생의 경우도 심은희 등(1988), 김일순(1992)과 최수옥(1989)의 구로여성의 흡연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중소도시는 “호기심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농어촌은 “친구의 권유”가 가장 많아 역시 조기 금연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남인 경우, 남자 형제가 많은 경우, 월세를 사는 경우, 종교가 불교인 경우 흡연율이 높은 것은 이신옥(1985)과 일치했으며, 학교성적 하위

나, 결손 가정의 경우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김일순(1992)의 결과와 일치하여 취약, 결손 가정의 학생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초 흡연 연령은 전체 대상자를 볼 때 6학년이 제일 많았으나 중소도시는 4, 5학년 및 3학년 이하도 있었고, 흡연동기가 중소도시 학생은 호기심이 대부분이나 농어촌은 친구, 선배, 형의 권유 등을 듣고 있어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의 흡연이 저학년 학생의 흡연 동기에 영향을 볼 때 저학년 때부터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모가 자녀의 흡연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나 중소도시 부모의 30.0%가 알고 있다는 문제는 중소도시 학생의 흡연장소가 대부분 자기 집이거나 화장실이라는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신옥(1985)의 중등학생의 흡연사실을 부모가 대부분 모른다고 응답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농어촌 부모가 모르고 있다는 결과(79.7%)와는 유사하였으며 이는 흡연장소가 야외이거나 화장실 및 친구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학부모나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신옥(1985)의 보고에서는 흡연장소를 자기 집이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흡연 사실을 부모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흡연 기회가 많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여 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용돈이 많은 경우에 흡연율이 높았고, 특히 흡연학생 중에 군것질이나 오락, 만화책 구입으로 용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흡연상태나 학생 용돈 관리에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담배 구입은 농어촌의 경우는 주로 친구나 선배로부터 구하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주로 어른들의 담배를 몰래 키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 흡연이 있는 경우 흡연학생이 더 많았고, 담배 심부름을 자주하는 경우 흡연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에 접하는 기회가 더 많을 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일순(199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흡연이나 흡연에 대한 태도가 후에 자녀의 흡연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함을 말해 준

다. 따라서 금연 교육과 성인 흡연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담배 해독 등에 관한 지식은 흡연학생이 비흡연학생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흡연남학생의 71.7%, 흡연남학생의 61.6%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여학생은 75.2%가 필요하다고 대답함으로써 금연교육을 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국민학생 흡연의 경우는 흡연의 해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의 어른, 선배 형들의 흡연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학교보건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금연교육으로 청소년흡연에서 성인흡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금연교육이나 강력한 자기통제를 유도하는 집단교육 같은 국가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농어촌과 중소도시 청소년의 흡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 까지 경상북도내 농어촌 지역 6개 국민학교와 중소도시 2개 국민학교 총8개교의 남·여 6학년학생 14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학생의 5.5%가 현재 흡연 인구이었고, 과거 경험은 6.9%이었으며, 비흡연은 87.6%이었으며, 남학생의 흡연율을 보면 농어촌 14.6% 및 중소도시는 5.7%이었다. 농어촌 남학생의 13.8%와 중소도시 남학생의 9.7%가 과거 흡연경험이 있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학생의 흡연율간에는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p < 0.01$).

농어촌의 경우 부의 직업이 어업이 38.8%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회사원이 45.4% 많았으나 모의 직업은 농어촌의 경우 44.3%가 취업 주부였고 중소도시는 34.6%가 취업 주부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정도는 농어촌에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황에서 양친이 있는 경우 농어촌이 86.9%였으며, 중소도시는 94.3%여서 농어촌 학

생 중에서 결혼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지출에서는 농어촌에서는 굳것질을 가장 많이 하고, 중소도시에서는 학용품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수업 이외 시간 활용에서는 농어촌에서는 운동이나 놀이를 중소도시에서는 학원에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형제가 많을 수록, 학교성적 하위, 흡연자가 있는 가정 및 결혼 가정에서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 < 0.001$). 농어촌의 경우 친구, 선배형의 권유로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호기심으로 어른들의 담배를 몰래 꺼내어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도 농어촌은 야외에서 "흡연한다"로 나타나 중소도시의 자기 집에서 "흡연한다"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대가족의 경우 흡연율이 핵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이 회사원보다 농어업에서 흡연율이 높았으며($p < 0.001$) 흡연학생에서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흡연학생중에서 일세를 사는 경우가 비흡연학생에 비해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흡연에 관한 태도 지식은 흡연이 타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쁜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흡연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담배의 해독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는 물음에 흡연학생의 경우는 친구 선배로부터 들었다가 많았고, 비흡연학생의 경우는 T.V,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장래흡연 유무의 물음에는 비흡연학생 51.2%, 흡연학생의 47.9% 피우지 않겠다고 하였고,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도 비흡연 경우 46.6%, 흡연의 경우 39.9%로 나타났다.

성인 흡연에 대한 찬반 물음에는 남학생의 70.2%가, 여학생의 82.2%가 반대한다고 하였고,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남학생 70.6%, 여학생의 75.2%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근래에 들어 청소년의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농어촌의 경우 중소도시 보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흡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학생의 경우 흡연에 대한 지식이 없이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조기 금연교육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복수, 예민해, 이성관. 대구지방 일부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경북의대잡지 1980; 21(2): 604-609
- 강복수, 이성관. 일부 농촌 주민들의 흡연에 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80; 13(1): 77-85
- 김돈균. 우리나라의 흡연에 관한 연구 방향. 예방의학회지 1980; 13(1): 93-95
-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서울, 1966, 쪽 276-277.
- 김명호. 흡연과 건강. 예방의학회지 1980; 13(1): 87-88
- 김일순. 여성 및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보건주보, 제853호, 1992
- 대한보건협회. 흡연과 국민건강. 대구·경북지부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2, 쪽 5-42
- 맹광호.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 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1988; 10(2): 138-145
- 백남엽.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담배 흡연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86
- 서 일, 이해숙, 은영세, 김일순, 신동천, 최영아. 전국 남자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988; 10(2): 131-137
- 심은희, 서 일, 이해숙. 서울시내 여고생 흡연실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8
- 이길홍.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88
- 이신옥. 남자고등학교 학생의 흡연과 건강 상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85
- 임태민.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 전매청. 제 2차 전국 남자 중, 고생 흡연실태 조사(1). 담배와 건강, 통권 19호, 1990
- 정경임. 일부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 1981; 19(1): 60-67
- 조상문.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 연구. 공중보건잡지 1973; 10(1): 73-80
- 최순옥. 산업체 근로여성들의 흡연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흡연을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쪽 1-35
- Fielding JE. *Smoking; Health effect and control.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3th ed., Appleton-Century Crofts, Norwalk, 1986, pp. 715-740*
- Malotte C, Fielding JE, Danaher B.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smoking cessation. AJPB 1981; 71(8): 844-847*
- Mennis JF. *Smoking; The physiologic effects. Am J of Nursing 1983; 73: 1143-1146*
- WHO. *Smoking and its effects on health. WHO, Geneva, 1975, p. 100*